

#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평가기준 변경하나

### 후보 지자체에 평가항목 제출 요구 공모 신청 기한도 6월7일까지 늦춰 후보지 선정 잡음 없애기 안간힘

전남도가 도시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억누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기존 평가항목 외에 심사에 반영할 평가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공모 마감일을 또 다시 늦추며 '특정지역 선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 신경쓰는 모양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28일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공모에 나서려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 과정에 반영해야할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와 광양시가 특정지역에 치우친 평가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만해도 "심사숙고해서 만든 기준을 변경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위반할 수 있다"며 거부했던 입장과 사뭇 다른 조처다.

애초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의견을 거둬보지도 않다가 후보지들이 '유치 신청 철회'에 시의회까지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수시는 이같은 전남도 등의 제안을 받은 뒤 지역 간 상생발전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광주전남연구원에 28일 제출했고 순천도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담아 연구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양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양시의회가 전체 의원 명의로 성명서까지 내며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을 비판한데다,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 청사 유치 신청은 아무런 의미와 실익이 없다는 게 광양시 입장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여수·순천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기준위원장과 상의, 12명이 참여하는 평가기준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평가기준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해 공

모 신청 기한을 오는 6월 7일까지 재차 연기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칫 평가기준위원들 입장이 엇갈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수·광양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공모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김영록 지사의 공약으로, 325억원을 들여 순천·여수·광양 등 도내 동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행정기관을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청사는 3만 3057㎡ 부지에 건물 3개동(건축 연면적 9917㎡)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22년까지 준공되며 들어져있는 전남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만 전투기 고속도로 비상 이륙** 28일 대만 서부彰化(彰化)현 중산(中山)에서 한광(漢光) 35호 훈련에 참가한 F-16V 제트 전투기가 비상활주로인 고속도로를 이륙하고 있다. 한광 훈련은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이다. /연합뉴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 플랫폼 기관 선정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멘토링 플랫폼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업진흥원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서울 엔셀파트너스, 경기 용인시디지탈산업진흥원, 대전 목원대학교, 부산 부산경제진흥원을 선정했다.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남도(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종 선정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비 2억3300만원,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회사(참여기관)와 함께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2019년 멘토링 플랫폼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남지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멘토링(500회), 멘토링데이 운영(전문가 특강, 멘토링 300회), 멘토와 멘티 간 네트워크(300명 이상), 창업사업 연계 지원 등으로 생활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전남도 창업' 32개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별 멘토링데이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혁신적인 창업 지원 활동을 펼치도록 추가로 지원한다. '전남도창업'은 전남지역 창업 지원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하나의 창업 지원 시스템에 통합해 1대1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창업 지원 종합플랫폼으로,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80년 역사 광주 인쇄의 거리 옛 명성 되찾는다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80년 역사의 광주 인쇄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동구 서남동 일대 17만㎡ 부지에 들어선 인쇄의 거리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10인 이하 소규모 인쇄관련 업체가 335개 밀집해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모인 지구에 공동 기반 시설을 구축, 지구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15억원을 받아 운영·생산·연구 시설, 전시·판매장, 창고 등 인프라와 금융·판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 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입주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업비 6억4000만원을 들여 실태조사,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신기술 개발, 전시·홍보, 판로개척, 경진대회 및 인쇄인의 날 운영, 온라인 마케팅 등에

쓸 계획이다.

서남동 일대 인쇄의 거리는 1940년대 옛 전남도청 주변으로 인쇄 업체가 하나둘씩 터를 잡으며 시작됐다. 기획과 편집, 제판업체, 인쇄소, 종이 판매상 등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쇄거리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광주와 전남 지역 인쇄 산업의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웠지만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주문 물량이 감소하고 구도심 침체, 인쇄 매체 발달, 전국적인 인쇄 업체 등장 등으로 집체기를 겪고 있다.

한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인쇄의 거리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건의 뿐 아니라 ▲인쇄의거리 입구-전남대병원 오거리 도로 확장 ▲인쇄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인쇄출판산업체 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이 논의됐다.

인쇄의거리 주변 교통 체증과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전당(인쇄의거리 입구)-전남대병원 오거리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내달 15일 실시 광주시 8, 9급 795명 공채 1만568명 몰려

역대 최대 규모인 795명을 뽑는 광주시 8·9급 신규 공무원 공채에 1만568명이 몰렸다.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5일 치러지는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필기시험의 개인별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내 시험/인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6일 발표한다. 면접시험

은 8월 12~20일 치러진다. 9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및 도시철도 2호선 공사착공 등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795명을 신규 채용한다. 원서 접수 결과, 1만568명이 접수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9급의 경우 271명 선반에 4868명이 접수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2022년까지 전남도내 모든 시군 소방서 들어선다

### 전남소방본부 내년 장흥 이전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들어선다. 전남도청에 있는 전남소방본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흥으로 옮겨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소방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 2022년까지 소방서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

현재 전남지역 시·군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장흥·곡성·구례·완도·진도·신안 등 6곳으로, 전남소방본부는 이들 지역에 소방서를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설립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전남소방본부는 다음달 7일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서 새 청사 신축 착공식을 열고 장흥을 원도리 3만2000㎡ 부지에 본부동(4층)과 소방서동

(2층) 등 2개 동 건물을 짓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건립비용은 168억원 규모다. 내년 6월 신청사가 조성되면 도내 모든 시·군이 1시간 내 접근성을 확보해 신속한 현장지휘가 가능해진다는 게 전남소방본부 설명이다. 상주 근무 인원이 200명에 달하고 연간 소방관련 유동인구도 3만여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최근 조직 개편안을 포함한 조례안 통과로 전남소방정원이 3012명에서 3473명으로 증원되면서 부족한 현장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노후한 기존 소형 소방헬기를 중형 헬기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은 "충원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전남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영광 법성포 단오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23호(공개행사)

**2019. 6. 7.(금) ~ 10.(월) 4일간**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

**주요프로그램**  
- 난장트기 [5. 9.(목)] - 용왕제 / 선유놀이  
- 전국국악경연대회 - 단오장사씨름대회

NAVER 법성포단오제보존회